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3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043-870-5510) 명영찬 연구관(043-870-5514)	

국가기술표준원『계량박물관』온라인 서비스 개설

- 1905년 '법률 제1호' 도량형법 유물 등 새 단장 선보여 -

□ 보존된 유물에 숨어있는 정보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로써, 과학발전과 IT의 접목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도량형 유물을 온라인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길이,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유물들을 모아 전시한 계량박물관을 작년 8월 개관한 바 있다.

○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되, 말 등의 계량기, 계량제도에 관한 각종 문서와 기록물 등을 전시하고 있으나, 충북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 온라인 계량박물관에는 1905년(광무 9년) '법률 제1호'인 '도량형법', 도량형제도의 근대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근대도량형기'와 이 도량형기를 검사하거나 단속에 사용하던 '국가표준 도량형기'들을 검색(www.kats.go.kr/gm)할 수 있다.

○ 1964년 미터법의 도입과 전자저울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도량형기는 그 자취가 사라지고, '도량형' 이란 표현이 '계량'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도 알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도량형 보유 유물 701점 중 549점은 계량과 표준에 대한 역사와 중요성, 도량형의 시대성, 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대부분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다.

○ 그 중에는 조선 시대에 우시장 등에서 가축을 사고 팔 때 사용하였던 '소머리 가지자'가 있다. 당시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 소머리 가지자로 소, 말, 돼지 등 가축의 머리를 측정하여 가격을 흥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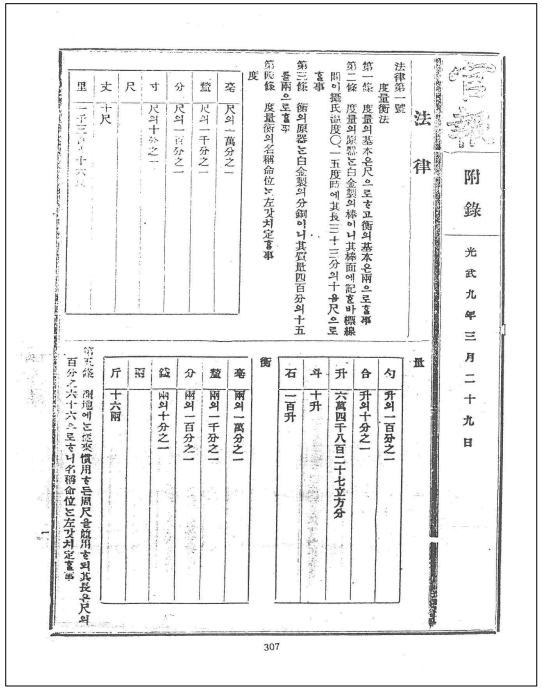
○ 또한, 8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대저울도 여러 종류 전시되어 있다.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움직여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이다. 약재나 금·은 등의 가벼운 무게부터 곡물·야채 등과 같은 생활용품, 쌀가마·보리가마·돼지 등 무거운 물건까지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으나, 기계식, 전자식 저울에 밀려 요즘에는 보기 어렵게 되었다.

□ 온라인 계량박물관은 관람정보, 유물자료실, 일반자료실 및 열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유물 검색과 함께 생활 속 계량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꾸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프라인으로는 현장체험을 통해 조상들이 지녔던 삶의 지혜와 계량의 슬기를 배우고 그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관람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붙임자료 :

1. 법률1호 도량형법(문서)
2. 소머리 가지자
3. 온라인 계량박물관 홈피

〈붙임〉



附錄

光武九年三月二十九日

法律

法律第一號

度量衡法

第一條 度量의 基本은 尺으로 하고 衡의 基本은 兩으로 함을

第二條 度量의 原器는 白金製의 棒이니 其棒面에 記호 바 兩線

間이 攝氏溫度 〇 一五度時에 其長三十三分의十을 尺으로

함을

第三條 衡의 原器는 白金製의 分銅이니 其質量은 四百分의十五

를 兩으로 함을

第四條 度量衡의 名稱命位는 左와 如히 定함을

度

毫	尺의一萬分之一	
釐	尺의一千分之一	
分	尺의一百分之一	
寸	尺의十分之一	
尺		
丈	十尺	
里	一千三百九十六	

量

勺	升의一百分之一	
合	升의十分之一	
升	六萬四千八百二十七立方分	
斗	十升	
石	一百升	

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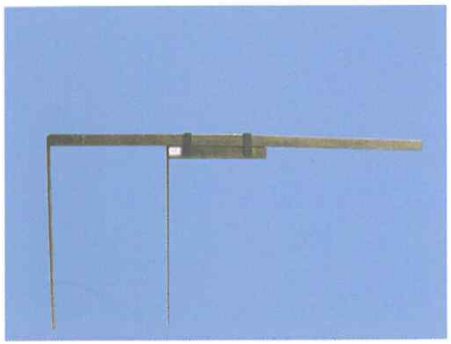
毫	兩의一萬分之一	
釐	兩의一千分之一	
分	兩의一百分之一	
錢	兩의十分之一	
兩		
斤	十六兩	

第五條 測量에 從來慣用하는 尺을 改用하되 其長은 尺의

百分之六十六으로 하며 名稱命位는 左와 如히 定함을

307

〈도량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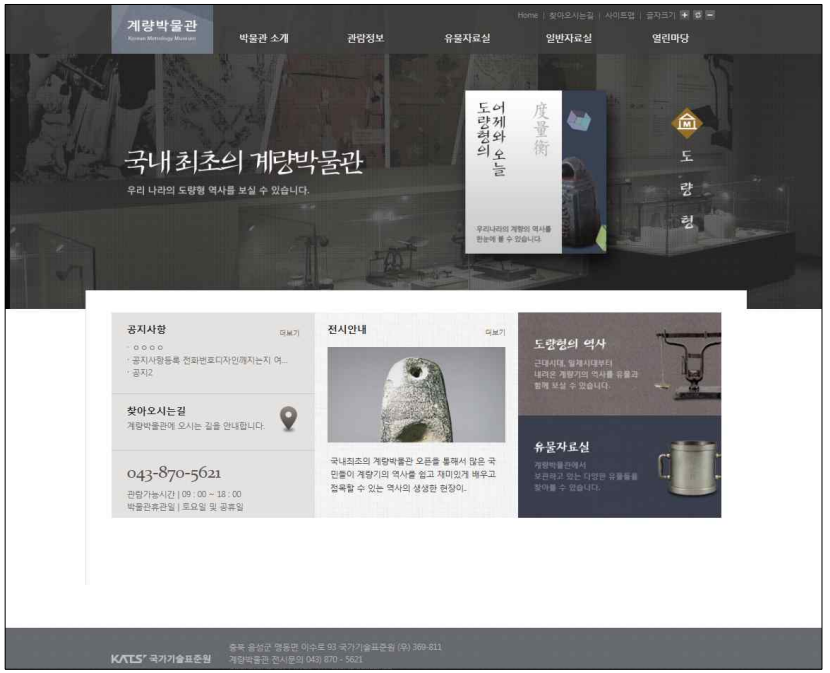


소머리 가지자

조선시대 소, 돼지 등 가축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표준자로 우시장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됨.

2척용 표준자(尺)로 관(官)자 화인(火印)이 찍혀있음.

- 가로 96.5 cm, 세로 33.5 cm



〈온라인 계량박물관 홈피〉